

재미있는 우편상식+

세계 여러 나라의 우편번호 II - 미국과 일본

박종흥*

인터넷, GPS, WiFi와 같은 용어는 더 이상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10년 전 만해도 전문가 그룹, 그 전에는 군과 같은 특정 집단에서만 알고 있는 고도의 기술적 용어였지만 휴대폰, 인터넷, 내비게이션과 같은 첨단기들이 보편화되면서 평범한 용어가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한 때는 “기술”에 해당되는 전문지식이 시간이 지나면 상식이 되곤 한다.

우정정보지의 특성상 “기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쓴다면 독자들은 아예 들춰보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본 칼럼을 기술보다는 편안한 그래도 상식보다는 조금 전문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 “상식+”란 제목으로 만들어 보았다. 우편의 전반적인 업무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독자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지난 호에 소개한 유럽 3개국(독일, 프랑스, 영국)의 우편번호 체계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체계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도로명 주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동안 우리와 일본에서 사용하던 영역 개념의 지번주소가 아니고 유럽과 미국 같은 도로의 선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의 주소이기 때문에 지난 호에 소개한 독일, 프랑스, 영국 및 미국과 일본의 차이를 파악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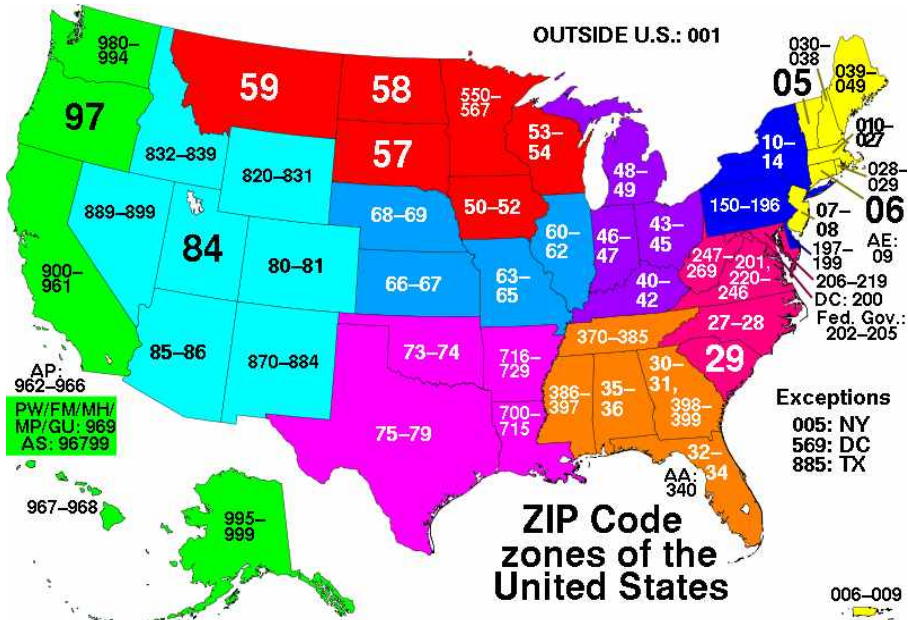
* ETRI 우정물류기술연구부, jpark@etri.re.kr

IV. 세계 여러 나라의 우편번호 – 미국과 일본

미국은 1963년부터 ‘ZIP code’ 또는 ‘Postal code(postcode)’라 불리는 독자적인 형식의 우편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 뒤 1983년부터 다섯 자리 번호(ZIP)로 대표되는 지역에 네 자리 숫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우편번호를 세분화했다. 이를 ‘ZIP+4 Code’라 한다. 곧 일반 고객은 다섯 자리의 우편번호(5-digit ZIP Code)를, 기업 고객은 아홉 자리의 우편번호(ZIP+4 Code)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약 4만 2,000개의 우편번호를 쓰고 있다. 도로명 기반으로 부여되는 미국의 주소는 아예 주소의 일부로 주(state) 코드 영문 두 자리에 우편번호를 붙여(예, CA90266, 캘리포니아 서해안 맨해튼 비치 지역)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림 8) 미국의 주와 우편번호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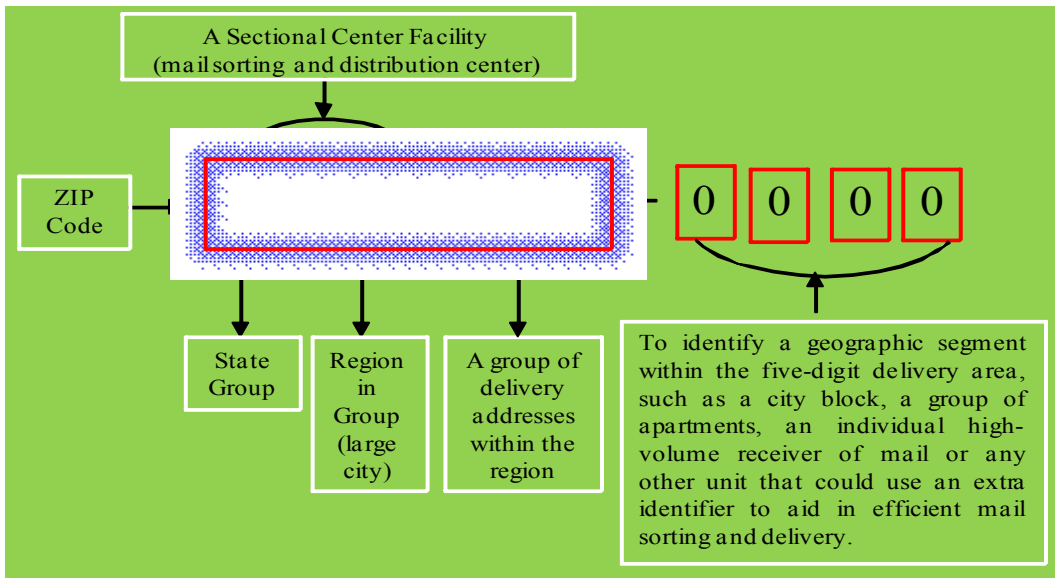
(우편번호 영역, 0=Connecticut(CT), Massachusetts(MA), Maine(ME), New Hampshire(NH), New Jersey(NJ), Puerto Rico(PR), Rhode Island(RI), Vermont(VT), Virgin Islands(VI), Army Post Office Europe(AE), Fleet Post Office Europe(AE), 1=Delaware(DE), New York(NY), Pennsylvania(PA), 2=District of Columbia(DC), Maryland(MD), North Carolina(NC), South Carolina(SC), Virginia(VA), West Virginia(WV), 3=Alabama(AL), Florida(FL), Georgia(GA), Mississippi(MS), Tennessee(TN), Army Post Office Americas(AA), Fleet Post Office Americas(AA), 4=Indiana(IN), Kentucky(KY), Michigan(MI), Ohio(OH), 5=Iowa(IA), Minnesota(MN), Montana(MT), North Dakota(ND), South Dakota(SD), Wisconsin(WI), 6=Illinois(IL), Kansas(KS), Missouri(MO), Nebraska(NE), 7=Arkansas(AR), Louisiana(LA), Oklahoma(OK), Texas(TX), 8=Arizona(AZ), Colorado(CO), Idaho(ID), New Mexico(NM), Nevada(NV), Utah(UT), Wyoming(WY), 9=Alaska(AK), American Samoa(AS), California(CA), Guam(GU), Hawaii(HI), Marshall Islands(MH),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FM), Northern Mariana Islands(MP), Oregon(OR), Palau(PW), Washington(WA), Army Post Office Pacific(AP), Fleet Post Office Pacific(AP)

미국 행정구역은 본토 50개 주와 1개의 연방 수도(특별시), 그리고 14개의 해외 연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우편 번호의 첫째 자리는, 미국의 주들을 동부에서 서부 지역으로 그룹화

해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부여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는 그룹 내에서 큰 도시를 중심으로 영역을 나누어 부여하고, 이 세 자리를 발송용 구분 코드로 사용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우편 집중국과 같은 메일 분배 센터 코드가 된다.

미국 우편번호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자리는 도착 구분용 코드로, 지역으로 나눈 것을 다시 배달 영역별로 표시한 코드다. 마지막 네 개의 숫자는 배달 지역에서 집배구 영역별로 세분한 것으로, 배달점과 배달 순로를 위한 코드다. 이때 앞의 다섯 자리 ZIP Code와 뒤의 네 자리 사이에는 하이픈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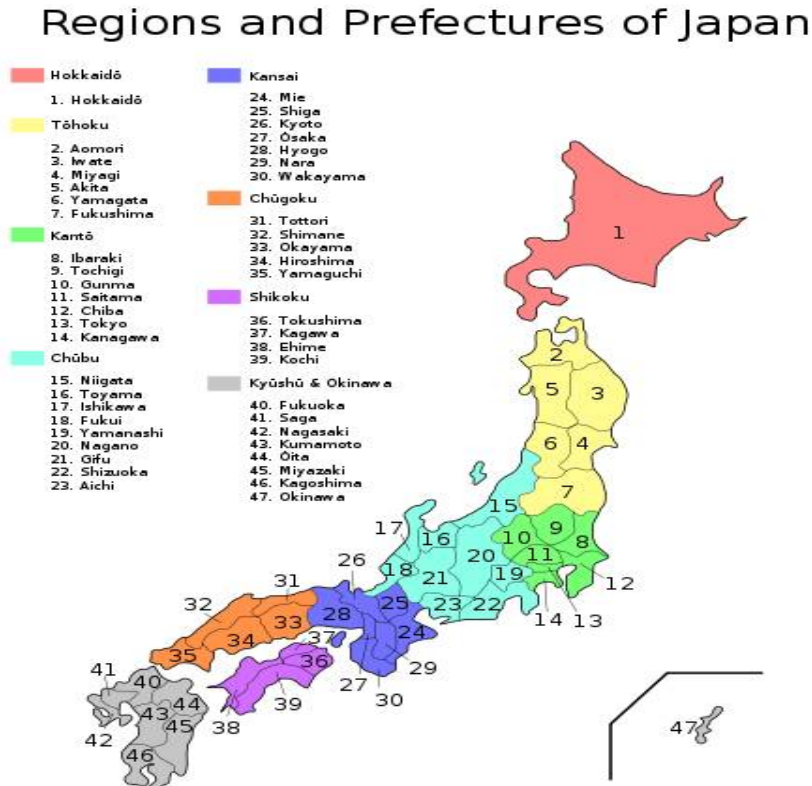
[그림 9] 미국 우편번호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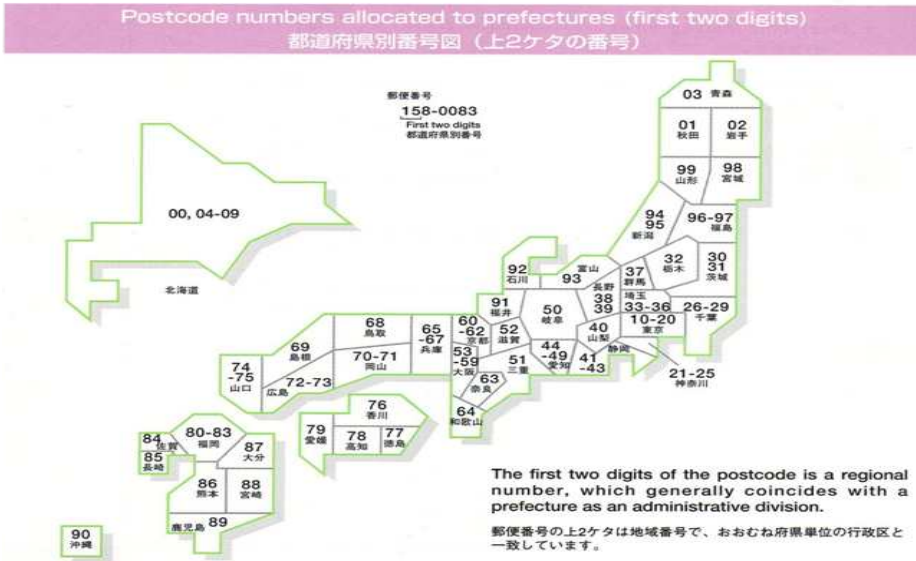


일본은 앞서 살펴본 다른 국가들과 달리 주소에 도로명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예전 방식 처럼 행정 구역(Block) 기반의 지번 우편 주소 체계를 쓰고 있다. 1998년 일곱 자리 숫자에 하이픈을 사용하는 신 우편번호 체제로 전환해, 세 자리의 발송용 번호와 네 자리 숫자를 이용하고 있다. 우편번호 앞의 두 자리는 시도 지역 코드를 적용해 우편번호 영역 경계와 시도 행정 구역 경계를 일치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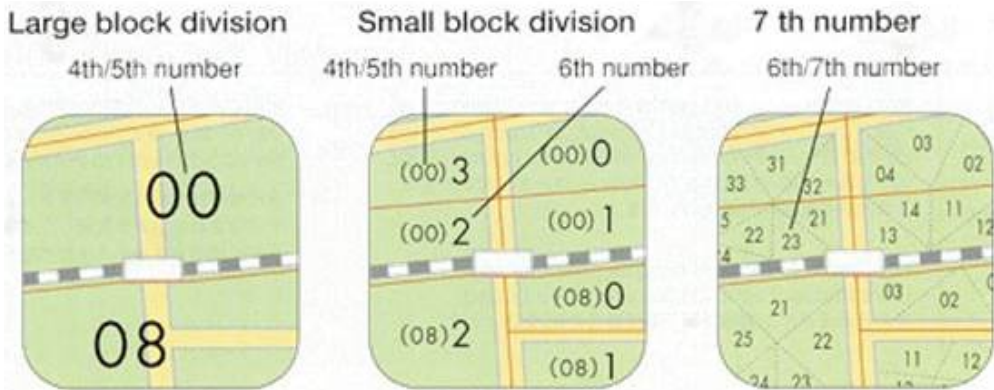
나머지 뒷부분의 다섯 자리는 시도 밑에 도시(Town), 세부 지역(Village) 형태로 코드가 부여된 우편번호를 쓰고 있다. 일곱 자리 중 뒤의 네 자리로 정목(丁目: Town) 영역을 나누어 번호를 할당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자리는 대블록 번호로 철도 길, 주 도로, 강 등으로 구분해 할당한다. 여섯 번째 자리 소블록 번호로 길이나 하천 등을 기반으로 열 개 구역 이내로 나누어 부여하고, 일곱 번째 자리는 각 정목 영역을 위해 할당된 번호 안에 하나의 우편번호를 부여한다.

(그림 10) 일본의 행정 구역과 우편번호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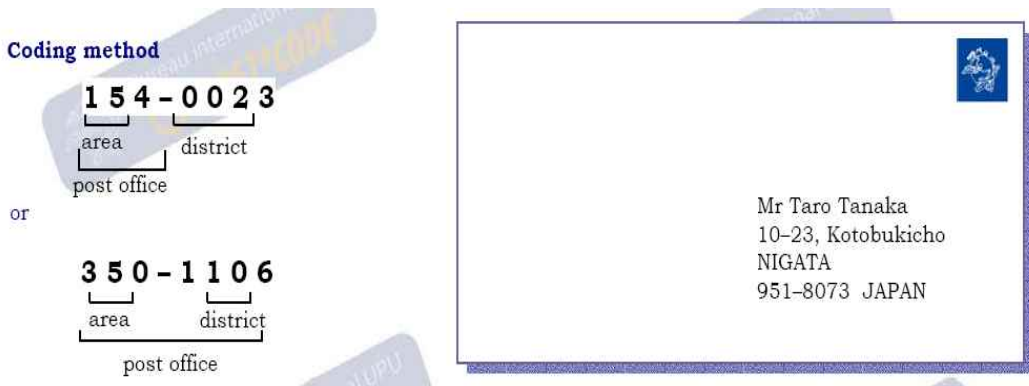


(그림 11) 일본 우편번호 부여 방식(4~7자리)



이때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 사이에는 하이픈을 두고, 대형 사업소, 사서함, 요금 수취인 부담 등에 해당하는 주소에 개별 우편번호를 부여한다. 우편 주소는 시도, 시군구, 작은 행정 구역 명, 번지, 호수 순으로 한 줄에 기재한다.

(그림 12) 일본 우편번호 체계



V. 우편번호 표현력 지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편번호는 각 나라별로 고유한 우편번호 부여 규칙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번호를 그 나라의 주소 체계와 같이 들여다보면, 우편번호를 주소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꽤 많아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한 190여 개 국가들 중 무려 117개 나라에서 우편번호를 주소의 일부로 쓰고 있다.

어느 국가의 어떤 번호 체계가 우수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 나라의 위치, 문화, 지형 등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해서 오랫동안 사용해서 국민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다만 새로운 우편체계를 도입하거나 개편을 검토할 때는 각각의 체계와 장단점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국가의 우편번호가 그 나라 주소를 얼마나 표현하는지 나타내는 “우편번호의 주소 표현력 지수(AI: Address Interpretation)”를 계산하기도 한다. 이 지수는 주소를 구성하는 각 항목 수에서 우편번호가 나타낼 수 있는 항목 수의 비율인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표준화된 주소 포맷은 시명+구명+읍면동명+지번이다. 이렇게 읍면동까지를 의미하는 숫자로 표현하면 주소 표현력 지수는 $\text{count}(\text{시명}, \text{구명}, \text{읍면동명}) / \text{count}(\text{시명}, \text{구명}, \text{읍면동명}, \text{지번}) = 3/4$ 이 된다. 이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모든 주소를 나타내는 번호

체계가 되겠지만 그 만큼 숫자나 문자의 자릿수 부담이 커진다. 하루에도 수백만 통의 우편물이 오가는데 번호 한 자리수가 증가하면 그 만큼 정보 체계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조합과 선택이 필요하다.

(그림 13) 국가별 우편번호의 주소 표현력 지수

국가	주소표현력 지수 (AI) = (우편번호가 포함하는 법정주소 체계의 길이) / (법정주소 체계의 길이)					AI
한국	市,道	區,市,郡	洞,邑,面,里	番地		3/4
	Postal Code					
일본	都,道,府,縣	市,區,郡,町,村	丁目	番	號	3/5
	Postal Code					
영국	Number/Building no.	Street	Sector	District	County, city, town	4/5
	Postal Code					
프랑스	Number/Building no.	Street	Arrondissement	Department		2/4
	Postal Code					
독일	Number	Street	Region	Area		2/4
	Postal Code					
미국	Number	Street	City, Town	State		3/4
	Postal Code					
캐나다	Number	Street	district	City, town	State	4/5
	Postal Code					
호주	Number	Street	city	State		2/4
	Postal Code					

VI. 세계 여러 나라의 우편번호 - 미국과 일본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우편 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5개국의 우편번호 체계를 살펴보고 우편번호 표현력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재미있는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영어를 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우편번호 역시 주소를 구성하는 하나의 항목이 되어 주소에 우편번호를 넣고 있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 같이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들은

우편번호를 도시명이나 타운(town) 이름 전에 기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새로운 우편 번호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큰 참고 자료임에 분명하다. 각 방식의 장단점 분석과 더불어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국민성 등을 같이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까지 정보망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전 세계가 하나의 우편번호 체계를 사용한다면 우편 소통에 도움이 될지 UPU(만국우편연합)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참 고 문 헌

박종홍·김인수·엄보윤, “획히 보이는 우편기술”, 전자신문사, 2009. 12.